드라마세트장 건립비 등 16억 추경 전액 삭감

함평군의회-집행부 마찰

"의회 승인없이 계약" 반발

함평군의회가 군이 추진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의회를 무시했다'며 추경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함평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 140회 임시회에서 일반회계 278억원 가운데 KBS어린이드라마 '후토스'(하늘을 나는 집) 야외 촬영세트장 건립예산 4억원 등 16억6천662만 원(5.75%)을 삭감했다.

군의회의 이번 결정은 군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BS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대동면 자연생태공원 내에 촬영세트장 설치사업을 시작한 때문으로, 일부 의원들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군은 이와 관련 영화 및 드라마 야외 촬영세트장은 지역경제 발전 및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데다, 최근 의원 간담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익성과 타당성 보고를 한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은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특히 이번 삭감으로 야외 세트장 건립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돼 KBS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S는 6월 말까지 대동면 3천470㎡ 부지에 조형물 5종을 비롯 후토스 프로그램을 촬영할 수 있는 야외 오픈세트장을 조성키로 지난 5월25일 함평군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촬영을 진행,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었다.

후토스 오픈세트장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4억 원으로 군이 먼저 사업비를 집행한 뒤 KBS가 총예산의 절반인 2억 원을 함평군에 지급키로 계약을 맺었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후토스 촬영세트장 외에 팔각정 정상 물탱크 설치비 8천만원, 장어가공공장건립 4억5천만원, 내수면 유료낚시터 시설 조성 5천만원, 장애인 세탁서비스 장비구입비 1천만원 등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개매기 체험행사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갯벌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손으로 잡고 있다.

장흥 '개매기 체험' 관광객 몰린다

전국서 3천여명 몰려
전어·농어잡기 행사

지난달 30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에서 열린 개매기 체험행사에 3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아 큰 성황을 이뤘다.

개매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 갯벌에 그물을 쳐 놓은 후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 떼를 썰물 때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

관광객들은 개매기 체험행사를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1천ha가 넘는 천연 갯벌에서 전어와 농어, 숭어, 돔, 낙지 등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손으로 잡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개매기 체험을 위해서는 입장료 5천원 (어린이 3천원)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망, 그릇, 갈아입을 수 있는 여벌의 옷, 장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장흥군은 샤워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했다. 개매기 체험행사는 오는 14일(토) 오후 1시부터 4시, 8월 11일(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차례 더 열린다. 문의 (061-860-0223)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혁신도시 이전기관 초청 탐방행사

나주시, 한전 등 대상 문화체험 행사 가져

나주시가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임직원 80여명을 초청, 지역 탐방행사를 열었다. 이들 임직원들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목문화관과 금성관, 체험염색문화관 등을 둘러봤다.

특히 전통 한옥마을인 '도래마을'을 방문하고 최근 복원된 동점문과 국내 현존 대성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주향교 등 나주의 전통 역사문화를 체험했다.

또 혁신도시 개발계획과 시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나주지역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나주시장은 "수도권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교육과 의료 등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임직원 자녀를 초청, 나주의 다양한 역사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에도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200여명을 초청, 농촌체험행사를 실시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김천일선생 추모제 임진왜란때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문열공 김천일선생 추모제가 지난달 30일 기관장과 문중대표 등 각계인사 7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 대호동 정렬사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나주지역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추모 백일장 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신비한 망태버섯 담양 죽녹원 대나무 밭에 망태버섯이 신비로운 자태를 선보이고 있다. 망태버섯은 아침 무렵 자태를 드러낸 뒤 오후가 되면 자루가 사그라지는 하루살이 버섯으로 콜레스테롤 저하, 지방질 감소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강진군, 청소업무 통합관리

환경정화센터 완공따라

그동안 읍·면에서 맡아왔던 강진지역 청소업무가 1일부터 군에서 통합 관리한다.

강진군은 최근 강진읍 목리에 최신식 환경정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이곳에서 각 읍·면 쓰레기를 전량 처리키로 했다.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처리장을 갖춘 환경정화센터는 150억 원을 투입, 2년여 공사 끝에 지난 달 초 완공됐다.

이에 따라 각 읍·면 자체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됐던 쓰레기는 전량 정화센터로 반입돼 처리되며 소각과 재활용 등을 거침에 따라 매립양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남는 청소인력을 재활용 선별과 관광 유원지, 각종 행사장 등의 청소 업무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와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7월 한 달간 주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법률 소비자보호 이동상담실 개설

농협 보성군지부

농협중앙회 보성군지부는 지난달 27일 법률구조공단 및 소비자 보호원 전문강사를 초청, '법률 및 소비자 보호 이동상담실'을 개설했다. 〈사진〉 이동상담실은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전문가 강좌및 상담순으로 진행됐다.

전병덕 지부장은 "농업인들이 실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할 기회가 쉽지 않아 상담실을 개설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불량식품 유통 차단 '그린 푸드 존' 설치

광산구 문방구·슈퍼 등

광산구가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그린 푸드 존'(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한다.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되면 구청 공무원들과 학교보건교사, 운영위원들이 문방구,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판매 식품의 보관상태·유통기한 등을 집중 관리한다.

한편 광산구는 우선 올 하반기 송정권 초등학교 11개교에 대해 시범 추진하고, 매년 1개 권역씩 늘려가 2010년까지는 4개 권역(송정, 우산·월곡, 첨단, 신가·운남)의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담양읍 국민임대 630가구 짓기로

2011년 입주

담양읍 백동리에 국민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

주택공사가 짓는 이 임대 아파트는 630세대 규모로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오는 2011년 10월께 입주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동리 임대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서민 주택난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효과도 기대된다.

담양군은 진입도로 개설과 상수도 시설 등 임대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담양지역에는 262세대 규모의 백동 1차 국민 임대아파트가 지난 4월 준공된 바 있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